

조선의원원 28명...지하스님 8선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



10월 31일 충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 직능교구선거에서 스님들이 투표 차를 기다리고 있다.

10월 31일 치러진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전국 15개 본사에서 표 대결을 벌여, 10개 본사가 경합을 벌였던 98년 12대 선거 때와 비교해 한층 더 치열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72.4%로, 12대 때의 평균 투표율 57%보다 15% 이상 높아짐으로써 스님들의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교구본사는 봉선사로 90.5%를 기록했다. 조선의원들과 본사주지급 중진 스님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중 직능직 21명, 직능직 7명 등 모두 28명이 처음으로 중앙종회에 입성했으며, 보

재선 31명(38%), 40대 의원 40명(49%)
"직능직 전문성 결여" 제도 개선 목소리

선 중진 법조 등 7명 가량의 중진 스님들도 13대 종회에 참여하게 됐다. 조선 및 다산의원 현황은 재선의원이 31명(38%)으로 가장 많고, 조선의원 28명(35%), 3선 15명(19%), 4선 3명(4%), 5선 2명(2%), 6선 1명(1%) 8선 1명(1%) 순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명(49.4%), 50대 30명(37%), 60대 9명(11.1%), 30대 2명(2.5%) 순으로 나타나, 30~40대가 55명이나 됐던 12대 종회와 비교해 연령층은 다소 높아졌다.

당선된 중앙종회의원 중 최고 득표를 당선자는 8교구 직지사 법동스님으로 49.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24교구 선운사의 법경스님은 3위와 1표차로 당선됐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지하스님은 8대를 제외하고 5대부터 13대까지 8선을 기록함으로써 이번 종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의 영광을 안았다.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꼽힌다. 우선 출마자들이 돈을 쓰며 투표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 함으로써 종회의원 선거가 '돈 잔치'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 것. 선거가 승가의 본분을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기됐다. 직능직 선출위원인 백양사 지선스님은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일인 10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스님들에게 중견이 편중되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래 전부터 직능직 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12대 마지막 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선거개편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됨으로써 이 문제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13대 종회의 의지 여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남게 됐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la.com

중앙승가대, 대학원 신설

정부 허가 정원 20명...내년 1학기부터 학생 모집

총장 종범스님 "2년후 박사 과정도 개설"

중앙승가대학이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원 설립을 허가받아 전문 승가교육 확충 및 승가 전문인력 양성 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설립된 중앙승가대 일반대학원은 불교, 역경, 실천불교(포교사회)전공 학술(석사학위) 수여과정으로, 20명 정원이며, 대학원 건물은 본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승가대 일반대학원은 2003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국

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조계종 승려 및 조계종단에서 인정된 타종단 승려에 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6일부터 13일, 전형일은 21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 031) 980-7777. 중앙승가대에 일반 대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정규 종합대학으로서의 중앙승가대 위상이 높아지고,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교계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불교계 현안인 역경학과를

설립, 역경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승가대에 대해 승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학원 설립에 따라 그동안 동결된 교수인력을 확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구소 설립을 통한 승단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교계일각에서는 중앙승가대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승가교육을 특성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후발 주자로서 타 대학과 특화된 학과를 육성하는 노력과 동문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은 "대학원 과정에 수행과 포교 등 현대에 필요한 교육을 두루 반영하고, 2년 후에는 박사과정도 개설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la.com

한·중·일 3국 불교계의 우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제1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8일부터 서울 봉은사와 종실 롯데호텔에서 열려, 테러에 의한 인명실상과 전쟁중식을 촉구하는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3국 불교환경사건진전위원회 등을 갖고 29일 폐막했다.

이번 서울대회는 지난 9.11 뉴욕 테러, 10월 12일 발라섬 테러 사태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와 전쟁에 대해 세 나라 불교계 지도자들이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0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주최한 환영 오찬장에서 3국 불교 대표들이 한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수행체험단 교환등 합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 폐막

29일 강남 봉은사 미륵대불 공장에서 열린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에서 3국 대표들은 불교의 자비사상이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3개국어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한국대표들은 이에 앞서 28일 종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서 2003년도 한중 불교수행체험단 교류사업을 내년도 9월경에 실시하는 것과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한일 대표단 상치순례, 환경 사진 일본 운송 문제 등의 교류사업 등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3국 지도자들은 황금유대 강화를 위한 교류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했다.

3국 지도자들은 '인류 평화창조와 불

법'이란 주제로 29일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 인류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대표 지하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은 기초강연에서 '테러와 전쟁 등

분쟁이든 인류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부처님의 자비 평등, 양보, 관용의 사상으로 국제간의 전쟁과 분쟁해결에 3국 불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주장했다.

국제 분쟁·테러 방지 3국 불교계 협력

황금유대 강화 위한 교류 확대...내년 대회 일본서

로 세계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교는 자비와 조화를 통해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는 만큼 3국의 불교가 더욱 협력해 온 인류가 평화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 성호이(聖輝) 스님도 "어떠한 형태의 암살 행위, 테러, 전쟁, 폭력, 국제

포한 일본 대표로 나선 야스다 에이인(安田 英樹) 스님도 보살행의 실천이 인류평화의 창조에 공헌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기초강연을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정대 종단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20개 종단 190여명이 참가하고, 중국은 성호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130명, 일본은 고바야시 류우소(小林 隆彰) 일중한국제불교협회 이사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80명과 참관단 등 총 700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r-garf@buddhapl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이버 포교사

1.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없다
 2.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종단이 시험 후 자격증 발급 ③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움 ③자율 활동에 맡겨야

설문 참여: 11월 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부질없는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5호 A판 8면에 실립니다.

깨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원한다면, 올랐다고 생각되는 사안, 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관해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올립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공정한 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아바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가뭄 나간다면 귀마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마의 소중한 꿈을 이루십시오!

예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2003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 과정 및 학과

과 정	학 과	전 공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
		- 역경
		- 실천불교(포교사회)

2. 모집인원: 불교학과 20명
 - 불교 전공 약간명
 - 역경 전공 약간명
 - 실천불교(포교사회) 전공 약간명

3.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단에서 인정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4.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2002. 11. 6(수) ~ 11. 13(수) 17:00까지 (대학원 교무과)
 2) 원서 접수: 2002. 11. 6(수) ~ 11. 13(수) 17:00까지 (대학원 교무과)
 3) 전형일: 2002. 11. 21(목) 14:00
 4) 합격자 발표: 2002. 12. 2(월) 11:00
 5) 등록 기간: 2002. 12. 11(수) ~ 12. 13(금)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면접 대기실 - 김포학사 강의동(지혜관) 203호
 면접 고사실 - 김포학사 강의동(지혜관) 205호
 2) 시간: 2002. 11. 21(목) 14:00 시행

6.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4) 성적증명서 (3개월 이내) 1부
 5) 최종 수계증 사본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cm)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후, 2003. 2. 28(금)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무료 배부
 2) 전형료: 40,000원

8.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없이 전형 미응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에서 결정함.

9.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10.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무과
 전화: 031)980-7777(내선: 7716) FAX: 031) 980-7778

■ 특전: 1) 조계종 소속 승려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교내·외 장학금 지급